

원희룡 장관,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

- 4월 13일, 체코 고속철도 사업 등 교통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-

□ 「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('22.8)」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(목) 마틴 쿱카(Martin Kupka)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.

□ 원 장관은 마틴 쿱카(Martin Kupka)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원희룡 장관은 “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*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”라며,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·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.

* 한-체 철도협력 회의('14.6, '18.3), 한-체 철도협력 MOU 체결('15.2), 한-체 교통협력 MOU 체결('16.8), 한-체 코 항공협정 체결('23.3)

○ 이에, 마틴 쿱카(Martin Kupka)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, “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,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”라고 화답하며, “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·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
○ 원희룡 장관은 “체코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며,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건설·운영 분야에 정부·공공기관·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답하였다.

- 또한, 원희룡 장관은 마틴쿱카(Martin Kupka) 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6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장관회의 참석을 요청하며, “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각국 철도 관련 장관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”이라 하였고, “5월 달에 있을 OECD 국제교통포럼(ITF)에서 다시 만나 양국간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”고 언급하였다.

2023. 4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